

# 떳떳한 한국인 (7)

## 1. 주인정신

—韓國精神文化研究院提供—

本稿는 선진국가를 指向하는 現代社會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社會의 實狀을 投影하여 文化國民으로서 지녀야할 姿勢를 摸索하고자 掲載하는 바이다.

앞으로 本欄을 통해 主人精神·名譽心·道德心과 더불어 국민 主体意識을 考察하고 協同精神·使命感·準法精神을 살펴봄으로써 協同社會의 意味를 되새겨 보며, 愛國心과 反共精神 그리고 統一意志를 照明해 봄으로써 先進祖國의 文化國民의 姿勢를 다짐해 보고 자 한다. .... 編輯者註

## 나라의 당당한 주인

우리 동료 국민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김철수이다. 김씨는 서울에 있는 모 건설 회사에서 4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올해 나이 42세의 봉급 생활자이다. 그는 노부모와 아내, 그리고 슬하에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2남 1녀의 자녀들 모두 일꾼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이다. 그는 현재의 직장에 근무한 지 20년, 자재관리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중견 사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회사가 국내외 여러 곳에서 벌이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건설 공사에서는 자재공급과 관리의 책임을 도맡아 처리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직급은 여전히 4급이고, 월수입도 통털어 40만원 대를 넘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는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통근해야 하는 고달픔을 마다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주있는 특근도 받아들인다. 요컨대, 그는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직장인으로서, 근검 절약의 매일을 보내면서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의 출세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 묵묵히

일하는 극히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인 것이다.

그는 현재의 자기 처지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없을 수 없고,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서도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그 일부에 편승하기도 한다.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이라 함은 주로 그의 직급과 보수에 관한 것으로 20년이나 근무한 그의 직급이 아직도 4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 사원들은 처음부터 3급이라는 상위 직급을 받아 보수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승복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주위의 부조리 현상은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는 심정이 괴로우면서도 때로는 자신도 그 부조리 현상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콩나물 시루같은 통근버스 안에서 짐짝 취급을 당하는 고통 짙은 잠시 참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버스를 포함하여 길 가는 모든 차량들의 난폭하고 무질서한 운행 실태를 조석으로 보면서, 그는 홀로 한탄과 함께 어느 덧 자신도 그 무질서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음을

피롭게 생각한다.

버젓하게 써 붙여 놓은 정차 표시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도저히 출근 시간에 대지 못할 듯하여, 어느덧 그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때로는 새치기도 불사하고 만다.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의 대로 횡단과 길가에서의 침 뺏기, 휴지 버리기 등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때때로 이러한 '경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있다. 앞뒤를 돌아봐도 차량 통행이 없으면 횡단 보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핑계, 또는 길가에 휴지통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구실로 그가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주로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편승 심리가 작용하여 생긴 습관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자주 이용하는 지방 출장 길의 기차 안에서 그는 알게 모르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열차 안에서 안하무인격의 소란을 피우는 취객들을 보고서, 또는 객차 안에서 태연하게 아이의 변을 보게 하고 있는 아낙네들을 보고서도 김씨는 이마를 찌푸리면서도 이를 제지하려고 해본 일이 없다. 하지 말도록 타일러 봐야 들어줄 것 같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나 벌어질 것 같으니 아예 못본 체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이지만, 그의 심정이 불쾌하기만 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어디 그 뿐인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착하고 성실한 국민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가 자주 목격하는 여러 부조리 현상 가운데, 한탄만 하면서 선뜻 시정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직책상 관청 출입을 자주해야 하는 그로서는 우리나라 관청에서는 도대체 왜 그다지도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지 울화통이 터지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감히 자기 입 밖에 낼 일이 아니라고 체념하고 만다. 같은 회사가 같은 성격의 인·허가 신청 서류

를 제출하여, 기계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가 나오는 안전인데도, 서류마다 중복된 것을 요구하고, 그 결재를 받기까지 수십개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보고서 그는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한탄할 뿐, 사실상 별다른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 김 철수씨를 비롯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뚜렷한 주체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형태들은 과연 그대로 시정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뚜렷한 주인 의식을 가졌다면, 그 자신은 물론, 그가 거느리는 모든 성원들도 자기 가정에 대한 주인 의식이 투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가정 안에 부조리한 현상이 그대로 방치될 수 없다는 데는 긴 설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원래 주인 정신이란 개인이나 한 가정, 또는 한 국가 사회의 성원 각자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주체성의 자각과 함께 자신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공동 책임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투철한 주인 정신은 그 공동체의 내일을 망각한 쓰내기 정신이나 약삭빠른 한탕주의를 절대로 용납치 않고, 무책임하게 빈정대고 투정하고 한탄만 하는 책임 회피를 엄히 경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일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동료 국민의 한 사람인 김 철수씨가 정말 민주 국민다운 주인 의식에 투철했다면, 위에서 열거한 형태들에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그가 대학 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0년 근속에도 아직 4급이라는 직급에 머물러 있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를 시정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거대한 조직체의 인사 관계를 일개 하급 사원이 왈가 왈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만일 김씨의 불만이 충분한 이유를 가졌고, 그가 그 회사원으로서의 주인 의식에 투철한 사람이라